

# 현대부르조아사가 아놀드 토인비의 《문명》의 순환론과 그 반동적본질

최 성 우

##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에 의하여 파산당한 〈인종론〉, 〈세계주의〉를 비롯한 반동리론들은 오늘 여러가지 형태로 각색되고 변형되어 사람들의 민족의식과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말살정책을 정당화하는 사상적도구로 리용되고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본성을 가리우고 정당화하는 온갖 반동적사상조류들과 궤변들을 철저히 폭로분쇄하여야 한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9권 144페이지)

20세기에 들어와 자본주의적착취와 식민주의적락탈을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져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붕괴의 위험에 직면하자 반동적인 부르조아계급의 대변자들은 《서방문명의 위기》를 떠들면서 자본주의의 영원성과 전세계에 대한 서방제국주의의 지배체계를 정당화하는 여러가지 반동적인 력사리론들을 들고나왔다.

그중에서 대표적인것이 바로 영국의 부르조아사가인 아놀드 토인비(1889—1975)가 내놓은 반동적인 《문명》의 순환론이다.

토인비는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한 시기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 처한 제국주의렬강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여 《력사연구》, 《현대문명비판》, 《시련에 선 문명》등을 써냈다. 그중에서 그의 반동적인 력사리론인 《문명》의 순환론이 집중적으로 반영된 것은 1934~1954년에 저술한 전 10권으로 된 《력사연구》이다.

이 글에서는 현대서방부르조아력사학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리론으로 알려진 아놀드 토인비의 《문명》의 순환론과 그 반동적본질에 대하여 밝히려고 한다.

## 2. 본 론

### 2. 1. 토인비의 《문명》의 순환론의 기본내용

토인비의 《문명》의 순환론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본다면 인류력사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해 낡은 착취제도가 교체되는 과정을 통하여 발전하는것이 아니라 《문명》의 발생, 성장, 쇠퇴, 해체(와해)의 순환과정을 반복한다는것이다.

아놀드 토인비는 《력사연구》에서 《력사연구의 단위》로서 《문명》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였다.

토인비는 《력사연구》에서 《문명》을 하나는 원시사회를 가리키는 《미개사회》와 구별하는 의미로, 다른 하나는 해당 지역에서 일정한 력사적과정에 형성된 력사적, 문화적, 종교적류사성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문화적인 령역을 가리키는 두가지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는 이 두가지 의미를 정확히 구별하지 않고 섞어서 서술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두번째 의미를 많이 강조하면서 《문명》의 순환론을 전개하였다.

그는 모든 국가는 다 일정한 《문명》에 속해있다고 하면서 세계력사상에 존재한 여러 《문명》을 그 실례로 들었다.

그러나 그가 론한 《문명》은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추상적으로 설정된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그는 현 세계에는 지금까지 절멸하지 않고 남아있는 5개의 《문명》이 존재하고있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첫째는 서유럽그리스도교사회이고, 둘째는 동남유럽과 로씨야를 비롯하여 동방그리스도교를 믿는 정교사회이며, 셋째는 이슬람교사회이며 넷째는 인디아의 힌두교사회, 다섯째로 아열대와 온대지역의 극동사회이다. 이것은 그가 오늘날 세계에 존재하고있는 수많은 민족국가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순수 자의적이며 주관적인 시점에서 현 세계를 5개 《문명》권으로 인위적으로 구분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토인비는 왜 종전의 민족국가단위가 아니라 일정한 문화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문명》을 역사연구의 단위로 정해야 하는가를 서술하면서 역사가들은 일반적으로 국가나 국민을 역사연구의 영역으로 선택하는것이 통례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리해가능한 역사연구의 영역》을 구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는 영국의 역사는 대외관계와 떼여놓고 단독으로 이해할수 없다고 하면서 영국의 국내사를 영국에 미친 외국의 영향과 영국이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 미친 영향을 결부시켜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영국력사의 전과정을 현대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영국이 고립적으로 발전하였다고 볼수 있는 증거는 매우 적다고 하였다.

그는 영국에서 일어난 문예부흥은 문화적면에 있어서나 정치적면에 있어서 북부이탈리아에서 전파된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영국국민의 역사는 아직 한번도 다른것으로부터 고립되어 <리해가능한 역사연구의 영역>으로 된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역시 확실히 그렇게 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문명》을 《역사연구의 단위》로 설정한 자기의 견해의 정당성에 대하여력설하였다.

그러면 왜 토인비가 종전의 민족이나 국가를 단위로 역사연구를 진행하고 서술하던데서 벗어나 추상적인 《문명》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그것을 역사연구의 단위로 정하였는가 하는것이다.

토인비가 이러한 주장을 내놓게 된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서방제국주의의 지배체제가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던 사정과 주요하게 관련된다.

19세기말부터 서방부르조아사자들은 반동적인 부르조아민족주의에 기초하여 자기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내세우면서 역사연구와 서술을 진행하였으며 이것은 서방부르조아사 학계에서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어있었다.

실례로 19세기말~20세기초에 서방부르조아사자들은 반동적인 부르조아민족주의를 고취하면서 서유럽나라들이 서로 대립되어있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 역사적사건들의 발생과 과정을 유럽국가들간의 모순과 대립으로 인한것으로 본 책들에서는 제목자체가 《에스빠냐의 우세》, 《프랑스의 우세》, 《영국의 우세》 등으로 설정되어있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 사회주의와 민족적독립을 위한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이 양양되어 서방의 제국주의체제가 중국적붕괴에 처하게 되자 반동적부르조아지들은 《서방문명의 위기》에 대하여 떠들어대며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투쟁을 가로막는데서 서방 제국주의나라들이 서로 결탁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보게 되었다.

이처럼 위기에 직면한 서방부르조아지들의 계급적요구와 리해관계를 대변하여 토인비는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류사성을 가지는 일종의 문화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문명》이라는 개념을 《력사연구의 기본단위》로 정하고 《서방문명》의 전도와 그 미래를 론함으로써 서방제국주의의 지배체계를 리론적으로 변호하려고 하였던것이다.

아놀드 토인비는 《력사연구》에서 력사적과정은 《문명》의 발생, 성장, 쇠퇴, 해체의 반복과정이라는 《문명》의 순환론을 내놓았다.

그는 대체로 인간사회는 그 발전과정에 있어서 안으로는 안락, 밖으로는 외부의 위협을 받는데 이것을 도전이라고 하였으며 도전을 극복하려고 하는 반작용을 도전에 대한 응전이라고 규정하였다. 만약 도전을 응전으로써 성과적으로 극복한다면 사회는 내외적으로 세력을 강화하여 존속할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밖으로는 위신을 잃고 안으로는 물질적인 힘을 상실하여 결국은 파멸하게 된다고 하였다.

토인비는 《문명》의 발생에 대하여 론하였다.

문명의 발생에 대하여 토인비는 유리한 환경이 《문명》의 발상지가 된다는 종래의 견해를 부정하고 《문명》은 불리한 환경에서 발생한다는 리론을 전개하였다.

그는 환경이 불리하면 인간사회에는 여러 장애가 생겨나는데 사회는 불가피하게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는것, 만약 장애를 쉽게 극복하면 그 사회의 내재적힘 즉 창조력이 증대하여 《문명》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는 그 대표적인 실례로 고대에쉴트와 슈메르를 들었다. 그는 지구상에서 빙하기가 끝난 후 에쉴트와 메소포타미아지역에는 건조한 기후가 들어닥쳤는데 그것을 피하여 이주한 일부 주민집단들은 생존에 유리한 기후의 《최면적인 영향을 받아서 수면상태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자연기후라는 도전에 응전을 선택하지 않은 이 주민집단에서는 《문명》이 발생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고대에쉴트와 메소포타미아지역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건조화라는 도전에 대하여 소택지대를 개간하여 밭을 만들고 제방을 쌓아 큰물과 가물을 막아냄으로써 고대문명을 창조할수 있었다고 하였다. 즉 기후의 건조화라는 도전에 고대에쉴트인들과 슈메르인들이 성과적으로 응전함으로써 건조한 에쉴트와 메소포타미아지역에서 《문명》이 발생할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는 고대중국인들도 황하의 범람이라는 도전에 성과적으로 응전하여 《문명》을 창조할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토인비는 《문명》의 성장에 대하여 론하였다.

토인비는 발생한 문명은 성장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러나 일단 《문명》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성공적으로 성장하는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력사상 수많은 《문명》이 발전도상에서 사멸해버린 실례가 허다한데 그 원인은 도전이 너무나 심해서 응전을 진행하는 과정에 거의 생명력을 소모해버리고말았기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도중에 사멸해버린 《문명》을 《발육정지문명》이라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실례로 래평양상의 폴리네시아인과 북극지방의 에스키모인을 들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너무나도 혹심한 도전에 부닥치지 않은 사회는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성장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고 하였다.

《문명》의 성장에 관한 토인비의 리론에서 주목해야 할것은 《창조적소수자》의 활동에 대한 반동적인 주장이다.

그에 의하면 《문명》의 성장단계에서 지배계급의 대표자들인 《창조적소수자》가 출현하여 적극성과 창조력이 없는 대중을 이끌어나가도록 하며 대중으로 하여금 《창조적소수자》자신을 모방하도록 지도함으로써 《문명》은 성장한다는것이다.

이처럼 그는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적극성과 창조력이 없는 무뎡한 존재로 모독하였으며 반동적지배계급의 대표자들을 《창조적소수자》라고 규정하고 그들의 활동에 의하여 《문명》이 성장하게 된다는 반동적인 리론을 전개하였다.

토인비는 《문명》의 쇠퇴에 대하여 론하였다.

토인비는 한 사회가 외부세력의 정치력이나 군사력에 의하여 멸망한 실례가 많은데 그것은 이미 그 사회가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쇠약해져있었기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만약 《문명》이 왕성하다면 외부적인 정치적압력이나 외국군대의 침입과 같은 밖으로의 도전은 오히려 큰 자극으로 되어 사회는 더 발전한다고 하면서 실례로 프랑스부르조아혁명당시에 반프련합군의 침입은 프랑스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고 하였다.

그는 《문명》의 쇠퇴는 그 내부적요인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의 리론에 의하면 《문명》의 쇠퇴의 내부적요인은 《창조적소수자》의 창조적능력의 결여와 《내적프로레타리아트》 및 《외적프로레타리아트》의 《반란》이라는것이다. 그리고 《문명》의 쇠퇴기에 《창조적소수자》는 자기의 지위와 특권을 권력으로 유지하는 《지배적소수자》로 전락되어 대중을 이끄는 창조력을 상실하고 강제로 대중을 이끌려고 하며 힘으로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것, 그러면 대중은 《지배적소수자》를 따르며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 결과 노예적처지에 반항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반란》이 일어나게 된다는것이다. 이 《프로레타리아트》는 두개로 갈라볼수 있는데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완강히 반항하는 《내적프로레타리아트》와 폭력에 의한 병합을 거부하는 피압박민족들인 《외적프로레타리아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적프로레타리아트》 및 《외적프로레타리아트》의 《반란》에 의하여 《문명》은 내부적으로 쇠퇴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그는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을 극도로 적대시하면서 《문명》의 쇠퇴원인을 반동적지배계급의 통치능력의 약화로 보는 반동적인 리론을 전개하였다.

토인비는 《문명》의 해체에 대하여 론하였다.

그의 리론에 의하면 쇠퇴하였던 사회공동체에서는 해체기에 들어와서 종적분렬과 횡적분렬이 일어난다, 종적분렬은 국가들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인데 이 종적분렬은 문명의 쇠퇴를 일으키는 불화의 가장 특징적인 표현은 아니며 단지 사회를 지방적인 공통체로 분렬시키는것뿐이라는것이다.

그는 해체를 가져오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계급에 따라 갈라지는 사회의 횡적분렬이다, 횡적분렬에 의하여 사회는 《지배적소수자》와 《내적프로레타리아트》, 《외적프로레타리아트》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며 자기의 지위를 강제로 유지하려는 《지배적소수자》들의 통치에 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반항에 의하여 《문명》은 완전히 해체되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문명》의 해체과정을 《동란시대》, 《세계국가》, 《공백기》의 3개 국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배적소수자》의 통치에 적의를 품은 《프로레타리아트》는 《지배적소수자》의 통치를 반대하는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것으로 하여 《동란시대》가 닥쳐와 《문명》은 해체기의 첫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는것이다.

그는 《지배적소수자》들은 계속되는 《프로레타리아트》들의 반항을 폭력으로 누르고 강제로 해당 문명권에서 패권을 잡고 《세계국가》를 만들어낸다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고대로마제국과 같은 국가이며 세계국가는 《지배적소수자》가 《내적프로레타리아트》 및 《외적프로레타리아트》의 반란을 폭력으로 짓누르고 강제로 만들어낸것이므로 이것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더 큰 반항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그는 《지배적소수자》의 통치에 반항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에 의하여 《문명》은 멸망하게 되어 《문명》의 1대는 완전히 종지부를 찍고만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때에 해체되는 《문명》안에서 새로운 《문명》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는 낡은 《문명》과 새 《문명》사이에 있는 《공백기》이라고 하면서 이 《공백기》에는 멸망한 《세계국가》의 유물과 야만민족의 대이동이 생긴다, 이 시기에 종교는 매우 중대한 역사적역할을 노는데 종교는 일시 사회표면에서 물러나지만 다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어 부활한다고 하였다.

그는 《문명》이 사멸한 후 이미 사멸한 《문명》의 기초우에서 새로운 《문명》은 발생하여 성장, 쇠퇴, 해체의 순환과정을 또다시 반복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역사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토인비는 《문명》의 순환론을 논하면서 반동적통치계급의 립장에 서서 반동적 지배계급을 반대하는 인민대중을 투쟁을 적대시하였으며 역사발전에 끼친 종교의 해독적인 역할을 미화하는 반동적인 이론을 전개하였다.

## 2. 2. 토인비의 《문명》의 순환론의 반동적본질

토인비의 《문명》의 순환론은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부인하고 착취제도의 영원성과 서방의 제국주의적지배체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반동적인 역사리론이다.

토인비의 《문명》의 순환론의 반동적본질은 무엇보다도 역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부인하고 착취계급을 역사의 《창조자》로 내세우는 반동리론이라는 데 있다.

우선 토인비는 역사발전에서 차지하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부인하고 무저항주의를 설교하였다.

그는 《문명》의 발생을 논하면서 《문명》과 미개사회의 본질적차이는 《모방》에 있으며 인민대중은 《창조적소수자》를 모방하거나 따라가는 수동적인 존재라고 력설하였다.

그는 계급적착취를 반대하여 떨쳐나선 인민대중을 비속화하고 그들을 《내적프로레타리아트》라고 모독하고 적대시하면서 무저항주의와 순종을 설교하였다. 그는 폭력행위는 《내적프로레타리아트》에게 있어서 유일한 응전이 아니라 《자살적인》 행위이며 온건한 비폭력적인 응전만이 진정한 응전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고대로마시기 《내적프로레타리아트》가 《지배적소수자》의 통치에 고등종교인 그리스도교를 만들어냄으로써 비폭력적인 응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는 《정직은 최상의 해결책》이라는 속담과 성서에서 나오는 《온화한 사람들에게는 땅이 차례질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무저항주의와 순종을 설교하였다.

토인비의 이러한 주장은 인민대중을 착취계급의 행위를 따라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면서 무저항주의와 순종을 설교하여 착취계급의 계급적지배를 정당화하려는 궤변에 불과하다.

또한 토인비는 역사발전에서 반동적지배계급이 결정적역할을 한다고 주장해나섰다.

역사발전에서 반동적지배계급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그의 반동적인 주장은 《창조적소수자》의 역할에 관한 내용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그는 착취사회에서 반동적착취계급의 대표자들을 《역사의 신적단계》의 테두리안에서 《선택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역사를 창조하는 초인간적인 인격을 가진 《창조적소수자》라고 하면서 이들에 의하여 역사가 창조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의 절대적인 개인적다수는 침체하고 부동한 상태에 있는

유치한 사회적성원이라고 하면서 《문명》의 성장은 《창조적소수자》가 출현하여 적극성과 창조력이 없는 대중을 움직여 그들로 하여금 《창조적소수자》자신을 모방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는 자기의 이러한 반동적인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력사연구》에서 반동적인 착취계급의 대표자들을 《문명》의 창조자라고 내세우고 그들의 창조적인 행위에 의하여 력사상의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서술하였다.

그는 《문명》의 쇠퇴와 해체를 논하면서 착취계급의 대표자들인 《지배적소수자》들을 《지적능력의 대표자》들이라고 하면서 이 《지배적소수자》들에 의하여 철학이 고안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지배적소수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있는 창조력은 정치지적능력》뿐만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리스-로마사회에서 철학을 만들어낸것도, 인디아에서 불교철학을 만들어낸것도, 중국에서 유교와 도교철학을 만들어낸것도 다 《지배적소수자》들이라고 반동적통치계급의 역할을 미화하였다.

토인비의 《문명》의 순환론의 반동적본질은 다음으로 력사발전의 법칙을 무시한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리론이라는데 있다.

우선 토인비는 계급투쟁에 의하여 력사가 발전하는 력사발전의 법칙을 부인하고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적대시하며 악랄하게 외곡하였다.

그는 력사발전에서 차지하는 계급투쟁의 의의와 역할을 완전히 부인하고 악랄하게 외곡하였다.

그는 민족적억압과 계급적착취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반란》으로 모독하였으며 그로 하여 《문명》이 멸망하는듯이 설교하였다.

그는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펼쳐나선 인민대중을 《프로레타리아트》라고 독단적으로 규정하고 인민대중의 투쟁을 극도로 적대시하였으며 악랄하게 비방중상하였다.

력사적으로 볼 때 원래 프로레타리아트라는 말은 B.C. 6세기에 고대로마에서 자식밖에 아무 재산도 없는 주민을 라틴어로 proletarius라고 부른데서 유래되었다.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수행되면서 프로레타리아트라는 말은 최후의 착취제도인 자본주의제도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를 세우는 가장 힘있는 계급인 로동계급을 가리키는 정치적, 혁명적술어로 그 의미를 달리하게 되었다.

맑스와 엥겔스는 《공산당선언》을 비롯한 여러 저서들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력사적 사명을 과학적으로 해명한데 기초하여 프로레타리아트라는 말을 사회의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을 가리키는 의미로 정식화하였다.

그러나 토인비는 고대와 중세시기에도 《프로레타리아트》가 있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들고나오면서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저속화하고 적대시하였다.

그는 프로레타리아트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생겨난것이 아니라 고대그리스사회에서 먼저 생겨났는데 펠로폰니스전쟁시기(B.C. 431—B.C. 404년)에 부평초와 같이 의지할것이 없는 《망국》의 백성들이 생겨나고 이들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외국군대에 들어가서 고용병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내적프로레타리아트》의 원형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내적프로레타리아트》는 해당 사회성원의 일부로서 사회를 위하여 로동을 할뿐 사회의 은혜와 특권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때문에 《내적프로레타리아트》는 《사회적지위를 계승할 권리》를 빼앗긴 원한으로부터 지배자의것을 뽕가하는 《횡포성》과 《맹혹성》을 가지게 되며 이것이 《폭발》하여 폭력행위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 결과로 《문명》은 멸망하게 된다고 하면서 고대로마의 스파르타쿠스노예폭동을 실례로 들었다.

그는 황당하게도 유래인과 도구가와박부시대의 상인들도 《내적프로레타리아》에 속한다고 하였다. 그는 지식인들을 《내적프로레타리아》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력사발전에서

노는 지식인들의 선진적인 역할을 악랄하게 비방증상하였다. 그는 지식인들을 《사회적잡초》라고 모독하면서 《17세기말부터 모습을 드러낸 로씨야의 인테리겐찌야》들은 1917년에 일어난 《볼셰비크혁명에 있어서 쌓이고쌓였던 한을 토로하였다.》라고 사회주의 10월혁명에서 논 혁명적지식인들의 역할을 비화하여 악랄하게 헐뜯었다. 그는 로동계급의 수령들인 맑스와 레닌도 악의에 차서 헐뜯었다.

그는 민족적억압을 반대하여 떨쳐나선 피압박인민대중을 《외적프로레타리아트》로 표현하면서 그들을 《야만적전투부대》라고 모독함으로써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고 서방의 식민주의적착취를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또한 토인비는 모든 사회력사적현상들을 종교적, 관념론적립장에 서서 비과학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력사적사실이 가지는 의의 ...이것은 신의 계시이며 신과의 접촉에 대한 기대이다.》라고 하면서 력사발전법칙을 《신의 법칙》으로 서술하였다.

그는 《도전은 항상 신이 인간의 령혼에 대하여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는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마치 《신의 법칙》에 따른것처럼 묘사하였다. 이것은 본질상 종교의 법칙을 끌어들이므로써 력사발전의 법칙을 부인하는 반동적인것이다.

그는 멸망의 위기에 빠져 허탈감에 사로잡힌 서방부르조아계급의 립장을 반영하여 력사연구의 기본목적은 신을 인식하는것이며 이러한 인식수단을 신비적계시라고 하면서 력사발전에서 노는 인간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을 부인하였다. 그것은 그가 《사람들은 왜 력사를 연구하는가? 필자개인으로서는 력사가는 다행히도 인생의 하나의 목표를 가지게 된 모든 인간들과 같이 <신을 찾으라, 신을 보라.>고 부른 신의 명령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보았다고 말하는것으로 대답한다.》라고 한데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는 종교가 력사발전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듯이 력사를 외곡하면서 서방의 제국주의적지배체계를 유지강화할것을 설교하였다.

그의 《문명》의 순환론에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종교에 의한 《문명계승론》이다. 그는 한 《문명》이 쇠퇴기에 들어가면 그 《문명》가운데 포함되어있는 종교가 강화되어 그 《문명》의 내용을 흡수하기때문에 《문명》이 몰락한 다음에는 종교만이 남게 되며 그 종교는 다시 《문명》의 유산을 계승하여 다음《문명》의 발생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그는 《문명》은 종교의 노복이며 《문명》의 쇠퇴와 멸망은 보다 높은 종교적의식에 도달하는 한 과정이며 단계라고 하면서 로마제국이 지중해연안국가들에서 그리스도교전파를 준비한것처럼 서방문명과 미래의 《세계제국》은 그리스도교를 세계에 전파할 사명을 지녀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또한 토인비는 력사에 존재하는 시간성과 지역적특성, 력사적사건들간에 내재하는 본질적차이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그는 력사상에 존재한 모든 《문명》은 다 동질적이며 등가적이라고 하면서 한 《문명》과 다른 《문명》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현대서유럽문명과 고대에쥘트, 고대중국의 문명을 동일시하였다.

《문명》에 대한 반동적전해로부터 출발하여 그는 《력사연구》에서 력사적사건들과 현상들에 대한 반력사주의적대비까지 하였다.

그는 로씨야의 황제 뽀뜨르1세를 고대에쥘트에서 종교개혁을 실시하였던 아멘호테프4세와 쌍둥이라고 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20세기초의 도이쥘란트군국주의를 뽀로뽀니스전쟁시기 스파르타정신의 군국주의복사판이라고 하였으며 히틀러도이쥘란드의

군국주의정책이 B.C. 8세기의 아씨리아왕 티글라트 팔라사르3세의 정책에 뿌리를 박고있었다고 서술하였다. 지어는 스파르타를 군국주의국가라고 하면서 쏘련과 비교하여 쏘련을 군국주의국가로 비방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토인비의 이론이 력사연구의 초보적방법론인 시대적 및 지역적차이와 제도상의 본질적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한데 기초하여 전개된 주관적이며 반동적인 비과학적리론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토인비의 《문명》의 순환론의 반동적본질은 다음으로 서방자본주의제도와 제국주의적 지배체계의 영원성을 설교하는데 전적으로 복무하는 반동리론이라는데 있다.

토인비는 착취제도의 영원성을 설교하려고 하였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낡은 착취제도가 멸망하고 새로운 사회제도가 서게 되는것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다.

그러나 그는 《력사연구》에서 인류력사를 이른바 《문명》의 교체로, 그 계승으로 보면서 착취제도, 나아가서 자본주의제도의 영원성을 설교하려고 하였다.

그는 한 《문명》이 멸망하면 그 멸망한 《문명》을 뿌리로 하여 새로운 《문명》이 발생하는 식으로 《문명》이 교체되며 계승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멸망한 오랜 《문명》과 새로 발생한 《문명》사이의 관계를 비유하여 《〈아버지〉문명》과 《〈아들〉문명》이라고 묘사하면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낡은것이 멸망하고 새것이 서는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부인하였다.

그는 현존하는 모든 문명은 제1대문명에서부터 기원한 3대째 문명으로서 손자문명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가 인류력사발전과정을 제도교체의 력사로 보는것이 아니라 단순히 《문명》의 교체로, 그 계승으로 보았다는것을 말한다.

그의 주장대로 한다면 그가 말하는 《창조적소수자》와 《지배적소수자》, 《프로레타리아트》는 《문명》의 교체와 함께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는것이다. 즉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는 영원하다는것이다.

이렇게 토인비는 인류력사발전과정을 《문명》의 교체, 계승으로 봄으로써 계급투쟁에 의하여 낡은 착취제도가 멸망하고 새로운 사회제도가 서는 과정을 통하여 력사가 발전하는 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부인하고 착취제도, 자본주의제도의 영원성을 설교하려고 하였다.

토인비는 서방의 제국주의적지배체계의 영원성을 설교하려고 하였다.

그는 《...현존하는 문명들속에서 우리 서유럽문명을 제외하고 다른 문명을 든다면 이 미전에 쇠퇴하여 해체의 과정을 이르렀다.》고 서술하면서 《서방문명》의 영원성을 강조하려고 하였다.

그는 현시기에 해체기의 명백한 징후조차 보여주고있지 않은 《유일한 현존문명은 서방문명》이며 《서방문명》을 제외한 5개 《문명》은 쇠퇴기에 처하여있지만 서유럽사회는 아직 《문명》의 발생기에 있다고 하면서 서유럽사회의 확대와 서유럽문명의 전파에 의하여 현존하는 다른 문명과 미개사회를 포함하여 세계전체가 서유럽화되는 추세에 말려들고있다고 하였다.

그는 전세계를 서방제국주의의 지배밑에 넣으려는 서방제국주의자들의 속심을 드러내놓았다. 계속하여 그는 원자폭탄과 세균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전인류가 멸망할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기때문에 인류가 멸망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서방적》제원칙에 기초한 통합이라는것을 력설하였다.



그는 현 세계에서 국가들사이의 거리를 없애버린 비행장과 지구상에서의 생명의 존재자체를 위협하고있는 원자폭탄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통일되어 한지붕아래에 한가정을 꾸리고 살지 않을수 없게 하며 인류의 통합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서방적》제원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토인비가 주장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서방적》제원칙에 기초한 인류의 통합이 다름아닌 서방제국주의의 지배체제이라는것을 명백히 알수 있다.

### 3. 결 론

이처럼 토인비의 리론은 멸망의 위기에 직면한 반동적인 서방부르쥬아계급의 계급적 요구와 이익을 대변하여 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부인하고 착취계급의 반동적역할을 미화분식하며 서방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을 적극 변호하고 그 실현을 부추기기 위하여 꾸며낸 궤변이며 반동리론이다.

토인비는 부르쥬아어용나팔수들이 떠드는것처럼 《현대세계력사학계의 거성》인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충실한 어용인이며 그의 사상적대변자일뿐이다.

우리는 주체의 사회력사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온갖 부르쥬아사상과 반동적인 력사리론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실마리어 순환론, 《창조적소수자》, 《지배적소수자》